

[ 국제 ]

■ 이스라엘, 이란 핵 시설 폭격하나

이스라엘이 이란 핵 시설 공격을 준비 중이라는 영국 언론의 보도가 파장을 낳고 있다. 2005년 8월 대외 강경파인 마무드 아바디네자드 대통령 체제로 바뀐 이란이 핵 개발 문제를 놓고 서방권과 대립 수위를 높이며서 이란 핵 시설을 무력화하기 위한 이스라엘이나 미국의 군사공격 가능성은 계속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英紙 “3개 가상루트 등 비밀 계획 수립”

◇이스라엘, 이란 전술핵 공격 준비(?)=영국 선데이타임스는 7일 북수의 이스라엘 군 소식통을 인용해 이스라엘이 전술 핵무기를 이용해 이란의 우라늄 농축시설들을 파괴하기 위한 비밀 계획을 수립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공군은 소규모 벙커버스터 핵폭탄을 이용해 이란 나탄즈 우라늄 농축시설을 파괴하는 훈련을 진행해 왔다. 이스라엘은 핵무기 사용에 따른 방사능 낙진피해를 줄이기 위해 나탄즈 핵시설에 레이저 유도 재래무기로 구멍을 낸 뒤 핵무기를 투하해 땅 속 깊은 곳에서 폭발하게 만들 계획을 세웠다고 선데이타임스는 밝혔다.

조종사들 왕복 3,200km 여행연습 비행

신문은 이스라엘 전투기 조종사들은 최근 왕복 거리 3천200km에 이르는 이란 공습 여행연습을 위해 지브롤터까지 비행했으며 터키 상공을 경유하는 방안 등 이란 공습을 위한 3개 가상 공격 루트가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은 부인하고 이란은 반발=이 보도에 대해 이스라엘은 즉각 부인하고 나섰다. 이스라엘의 한 고위 관리는 선데이타임스에

임스는 과거에도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선정적 보도를 했던 신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란 핵 시설 공격 보도를 터무니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이스라엘은 부인...이란 “보복 대응할 것”

반면 이란은 이 보도를 발미 삼아 이스라엘이 역내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맞불을 놓는 등 정치적 공세로 대응하고 있다.

모하마드 알리 호세이니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선데이타임스 보도가 나온 뒤 자국을 공격하는 세력에는 반드시 보복대응할 것이라며 “침략자는 곧바로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반응했다.

◇이스라엘, 이란 핵 시설 공습 가능할까=이스라엘의 이란 핵 시설 공습 계획설은 이스라엘이 사담 후세인 정권의 핵 프로그램을 저지하기 위해 1981년 6월 이라크의 오시라크 원전을 실제로 공습한 사례가 있어 그 가능성에 무게가 실려 있다.

이스라엘에서는 아바디네자드 대통령이 2005년 10월 이스라엘을 지도 상에서 없애야 한다고 발언한 이후 우익진영을 중심으로 이란의 핵시설을 선제공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아리엘 샤론 전 총리의 안보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은 에후드 올

메르트 총리는 이란의 핵무기 보유는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 전체에 위협요인이 될 것이라며 이란이 핵무기를 갖는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란을 군사공격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이스라엘이 주도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란 전역에 산재한 핵 시설의 경우 1980년대의 이라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큰 데다 공격이 국제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엄청날 것이기 때문이다.

주변국들 영공 통과 주춤 가능성

이란은 걸프 지역 산유국들의 원유 수출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봉쇄해 세계 에너지 시장을 붕괴시킬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게다가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려면 주변국 영공을 통과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이라크 등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데 미국의 영향력이 커졌다고는 하지만 이들 국가가 이란 공격을 허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KIRI=연합뉴스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 처형을 둘러싼 국제적 비난에 ‘내정 문제’라며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누리 알-말리키 이라크총리(오른쪽)가 6일 바그다드 무명용사의 묘 이라크군 참설기념식에 참석해 연설을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후세인 측근 2명 사형 집행되나

이라크 정부가 사담 후세인에 이어 그의 측근 2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사형을 집행한다는 입장인 가운데, 사형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논란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취임 첫날 후세인 처형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으로 파장을 일으켰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2명의 사형집행 중단을 요구하고 나선데 이어 그동안 입장 표명을 보류해온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가 뒤늦게 후세인 사형에 유감을 표명해 국제사회의 사형제 반대 여론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고 외신들은 일제히 전했다.

영국 BBC 방송 인터넷판은 이라크 정부가 유엔의 사형집행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번주내 이들에 대한 사형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7일 보도했다.

후세인 조기 처형을 밀어붙인 누리

이라크 정부 강행 선언  
潘 총장·블레어 등 반대

알 말리키 이라크 총리는 지난 6일 이라크 군 참설 기념연설에서 “독재자의 처형은 내정 문제로, 이라크 국민의 뜻을 존중하지 않는 국가와는 관계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측근 2명에 대한 사형집행도 강행할 태세다.

이와 관련 후세인의 최측근 2명이 지난달 30일 형 집행 계획을 통고받은 상태에서 집행이 미뤄진 사실이 드러났다.

/연합뉴스

美, 北 겨냥 모의 공습훈련

B-52 폭격기 동원 지상 목표물 타격

미국은 핵무기를 적재할 수 있는 전략폭격기들을 대평양의 광 기지에서 발전시켜 약 2천485마일을 비행해 북한을 겨냥한 모의 공습훈련을 실시했다고 쿠바의 프rensa 라티나가 7일 평양발로 보도했다.

프rensa 라티나는 이날 북한의 관영 조선중앙통신(KCNA)의 보도를 인용, B-52 전략폭격기들은 한국의 영공을 통해 북한내 지상 목표물들을 겨냥해 새해들어 첫 모의 공습 훈련을 실시했으며, 한반도 남부에 위치한 미 7공군 소속의 F-16, A-10 전투기들과 합동으로 훈련이 실시됐다고 전했다.

앞서 KCNA는 전날 군사소식통을 인용해 핵폭탄을 적재할 수 있는 B-52 전략폭격기들이 지난 5일 북한을 겨냥한 모의 공습 훈련을 감행했다고 비난했다.

중앙통신은 “이날 8시경 광도의 기지에서 이륙한 ‘B-52’ 전략폭격기들이 항로상에서 급유를 받으며 남조선 지역 상공에 날아들었다”면서 “이 폭격기들은 남조선 강점 미 제7공군 전투기 등과 함께 지도와 상동 사격장을 작전무대로 해 우리측 주요 대상물들을 노린 지상 대상물 타격 연습에 광분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부시, 이라크 美軍 증파안 비판론 대두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르면 오는 10일께 이라크 사태 조기 안정을 위해 미군을 추가로 2만여명 파견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 일시적 증파안에 대한 미국 내 비판론이 대두하고 있다.

방송에 출연,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전쟁비용을 추가로 요구할 경우 민주당이 주도하는 의회가 이를 거부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면서 부시 대통령에게 이라크 전쟁을 치르도록 백지수표를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7일 CBS

/워싱턴=연합뉴스

150세까지 장수하는 비결 10가지  
적절한 스트레스... 늘 자신에 도전하라

100세 노인 인구가 점점 늘고 있다. 과학자들은 지난 200년 동안 인간의 수명이 2배 이상 연장됐고 150세까지 장수를 누릴 첫 번째 인간이 이미 탄생했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병약한 상태로 100세를 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7일 ‘건강하게’ 수명을 연장하는 10가지 비결을 소개했다.

◇규칙적인 운동=일주일에 3회 규칙적으로 수영, 산책 등의 운동을 30분씩만 해도 수명을 몇 년 연장할 수 있다.

◇약간의 스트레스=약간의 스트레스는 신체의 자연적인 회복 메커니즘을 자극할 뿐 아니라 활력을 주고 노화과정을 늦춘다.

◇좋은 지역에서 살기=어느 곳에 사느냐도 장수에 중요하다.

일본 오키나와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노인들이 많아 장수촌이라는 명성을 얻었다.

◇성공하기=재산과 기회가 많고 성공을 거두고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더 오래 산다는 연구 보고서들이 발표된 바 있다.

◇건강에 좋은 음식 먹기=시금치, 브로콜리처럼 황산화성분

과 베타카로틴을 풍부하게 함유한 식품들은 노화과정을 지연시켜 장수에 도움이 된다.

◇자기 자신에게 도전하기=정신 건강은 신체 건강만큼 중요하다. 뇌가 자극을 받고, 활동을 하면 면역체계가 강화되고 우울증부터 치매에 이르기까지 많은 질병의 발병이 늦춰질 수 있다.

◇생활을 즐기기=좋은 인간 관계는 장수의 비결이다. 기혼 남성은 평균 7년, 기혼 여성은 평균 2년을 더 장수한다. 조콜릿, 포도주, 웃음도 좋은 장수 약이다.

◇신속한 친구를 찾기=종교를 가진 사람이 무신론자보다 평균 7년 더 장수한다는 100여 편의 보고서들이 발표됐다. 종교처럼 친구도 장수 생활을 위한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식사항 줄이기=섭취 열량을 10~60%쯤 줄이면 대사작용과 해로운 활성산소의 생성을 낮춤으로써 수명을 늘릴 수 있다.

◇정기적으로 건강 점검하기=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에 걸리기 전에 미리 정기적으로 건강을 점검하는 것도 100세를 살 수 있는 방법이다.

/연합뉴스

호킹 박사, 우주 간다

2009년 계획 추진

영국의 저명한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 박사가 우주 비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영국의 데일리 텔레그래프가 8일 보도했다.

호킹 박사는 65세 생일을 맞아 가진 인터뷰에서 “올해 나중쯤 중력 비행과 2009년 우주로 갈 계획을 마련 중이다”고 밝혔다.

‘제로 중력 비행’은 우주의 상태를 모방해 승객들을 잠시 무중력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비행기가 날아가는 비행을 말한다.

호킹 박사의 지구 대기를 벗어나는 여행은 승객들을 내년 에 저지구체도로 보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영국 재벌 리처드 브랜슨경의 은하우주여행 프로그램의 진전에 달려 있다.

/런던AFP=연합뉴스

“세계 최소국 사세요”

‘시랜드 공국’ 매물 나와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국가인 시랜드 공국이 매물로 나왔다고 영국 일간 더 타임스 인터넷판이 8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시랜드 공국이 탁트인 해경(海峽)과 제한없이 즐길 수 있는 해풍, 그리고 완전하게 보장되는 사생활 등의 매력적인(?) 조건을 내걸고 매수자를 찾고 있다고 전했다.

시랜드 공국은 영국의 에섹스주 하위위향에서 7마일 떨어져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이 북해 연안의 항구 방어 차원에서 만든 해상방공 구조물로 두 개의 큰 기둥 위에 550㎡ 규모의 플랫폼과 그 위에 주거용 구조물이 설치돼 있다.

신문은 시랜드 공국이 판매 가격과 관련해 8자리 숫자(천만 단위)를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Large advertisement for '국채적립' (National Debt Savings) featuring a group of people and a large graphic of a piggy bank. The text promotes the benefits of saving for the future, such as securing a child's education and retirement. It includes a QR code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National Debt Savings program.